

학습이해도 평가(하)

1. '향약'은 사람이 보급한 자치적인 유교 생활 규약으로, 향촌 사회에서 양반 사족과 일반 백성들이 유교적 생활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2.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이 세웠던 백운동 서원으로 훗날 이항의 건의로 임금이 직접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하사한 사액서원이었다.
3. 조선의 태종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가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6조가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명령을 받는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4. 중종 때 개혁 정치의 주역이었던 조광조가 주장한 '현량과'는 농번기 농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자 없이 보릿고개를 보낼 수 있게 곡식을 나누어 주던 대외 구휼 제도였습니다.
5. 조광조가 주도한 '위훈삭제'는 중종반정 때 실제로 공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억지로 공신 대장에 명단을 올린 훈구 가짜 공신들의 공을 깎아내려 명단에서 지우고자 한 강력한 개혁 운동이었다.
6. 조선 세종은 북쪽 영토 밖으로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4군 6진'을 개척하여 오늘날과 유사한 국경선을 완성하였다.
7.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가 왕의 권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신하들이 모든 국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8. 조선 시대 국왕의 권력 독점을 견제하고 권력의 균형을 도모하던 핵심 세 기구인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통틀어 '3사(삼사)'라고 한다.
9. 조선 세조가 도입한 '직전법'은 관직에서 은퇴한 전직 관리와 현재 관직에 있는 현직 관리 모두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10. 전국의 최고 행정 구역에 파견된 최고 지방관인 '관찰사'는 서울 한양의 치안 유지와 도성 및 궁궐 수비를 총괄하는 한양 수도경비대장이다.
11. 조선은 고려 시대의 국가 종교였던 불교에서 벗어나, '성리학'을 국가 운영의 새로운 중심 학문이자 정치적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12. 길재의 학풍을 계승하여 지방 향촌에서 학문에 힘쓰던 '사림 세력'은 성종 대에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3사(삼사) 등의 언론 기구를 통해 중앙 정계로 적극 진출하였다.
13. 연산군 시기 일어난 '무오사화'는 사림 김일손이 지은 사초 속에 수록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훈구 세력에 의해 사림이 큰 해를 입은 사건이다.
14.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나라를 세운 후, 고려의 옛 도읍이었던 개경을 그대로 조선의 도읍으로 유지하며 국가를 다스렸다.
15. 조선의 개국 공신인 정도전은 강력한 왕권 중심의 정치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며, 신권(신하들의 권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탄압하고자 하였다.
16. 조선 시대 전국 8도의 하위 고을(부·목·군·현)에 국왕의 대리인으로 직접 임명·파견되어 조세를 징수하고 농민을 직접 통치하던 지방 행정관은 '향리'이다.
17. 지방의 양반과 사족들이 주도하여 구성한 향촌 자치 기구인 '유향소'는 파견된 수령의 정치를 돕는 한편, 향리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18. 조선의 세종은 재능 있는 젊은 학자들을 육성하고 국가의 당면 과제와 성리학적 학술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궁궐 내에 '유향소'를 설치하였다.
19. 세종 대에 이종무를 파견하여 조선의 남쪽 바다를 노략질하던 왜구들의 소굴인 쓰시마섬(대마도)을 정벌하였습니다.
20. 평안도와 함경도 등 국경 지역 고을들은 거둔 세금을 전량 한양으로 지체 없이 운송하여 국가 예산으로 전용해야 하는 '조운 필수 의무 고을'이었습니다.
21. 사림의 두 번째 숙청인 '갑자사화'는 훈구 세력이 사림의 불교적인 정치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2. 조선시대에는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됨에 따라 고려시대에 존재하던 속현이 소멸하였다.
23. 4차례 사화에도 불구하고 사림들은 향약과 서원을 통해 향촌사회에서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훈구세력을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24. 조광조는 일찍부터 성리학 중심의 정치의 실현을 주장하며 소격서라는 성리학 사원을 전국 각지에 확대하여 설치할 것을 강조하였다.
25. 조선 시대 최고의 국립 고등 교육기관인 '성균관'은 신분의 제한 없이 조선의 노비나 천민 계층도 누구나 자유롭게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개방형 학교였다.
26. 조선 시대 전국의 각 고을에서 징수한 세곡(곡물 세금)을 강이나 바다 등의 수로를 이용하여 한양의 국고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수송 제도를 '조운제도'라고 한다.
27. 조선시대 성종은 직전법의 실시로 생계가 어려워진 전직관료들의 생계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여 전직, 현직 관리 모두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28. 조선 전기 군역 종사의 기본원칙인 양인개병제는 양반, 중인, 평민에 해당하는 양인이라면 누구든지 군대에 가야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29. 조선의 세종대왕이 집현전의 뛰어난 인재들과 함께 창제하여 백성들이 쉽게 쓰고 말하도록 반포한 조선의 공식 국문(한글) 명칭은 '항가'이다.
30. 조선 시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삼정승이 합의하여 국가의 중대한 국가 대소사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조선 최고의 중앙 행정 기구는 '의정부'이다.